

지 회 전 화 번 호
 서울 (02) 743-1937 부산 (051) 523-6023
 경기 (0333) 655-5233 강원 (0371) 44-1415
 충북 (0431) 223-7832 충남 (0417) 61-2215
 전북 (0652) 231-0824 전남 (062) 522-5768
 경북 (053) 422-7867 경남 (0551) 42-6573
 제주 (064) 22-6907 인천 (032) 762-7797
 대전 (042) 636-9896

양 봉 협 회 보

1 9 9 7
 1997년 3월 25일
 월 간 < 비 매 품 >

발행인: 정해운 / 편집인: 김충겸 / 인쇄인: 양광호 / 발행처: (사)한국양봉협회 ☎110-1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73 삼보빌딩 301호 전화(02)763-1372 · 5903 · FAX:764-1297

축산물 가공식품관리업무

12년만에 농림부로 환원

행쇄위, 전문성 있는 기관서 담당 바람직 벌꿀, 관계법에 포함안돼 농림부이관 불투명

축산물 가공업자가 12년만에 농림부로 환원, 일원화가 최종 결정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축산물가공식품관리 일원화」에 대한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4월에 상정돼 검토해온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환원토록하는 일원화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정된 쇠신 방안은 따르면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주관 책임부서를 농림부로 이관해 축산물 가공식품의 생산·도출단계부터 판매·소비까지 전과정에서의 인·허가, 지도·감독 등 제반 행정적 업무 및 위생검사업무를 총 관할하고 보건복지부는 제3자적 입장에서 최종판매단계의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축산물 가공업자는 당초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 농림부가 일괄 관장해 왔으나 지난 85년 7월 1일부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축산물 가공식품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이원화 됐다.

따라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어렵고 △축산물 특성상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 각 단계에서의 위생조치가 전문가인 수의사나 축산 전문가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소비자 보건위생을 저해시켜 왔다.

또한 △가공공장의 대형화로 동일기업이 동일장소에서 도축

(집유)·가공 등을 하는 경우 2개의 부처로부터 중복지도 감독을 받고 있어 축산기업의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문제발생시는 부처간 책임회피·전가로 애꿎은 양축농가들만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산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 일선 시·군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전문성 있는 농림부에 축산물 가공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농림부·보건복지부간 업무이관에 서로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들린다. 보건복지부는 85년 보사부로 이관될 당시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정의돼 있는 축산물만 내용을 입장만을 고수하고 나머지 축산물은 식품으로 분류하려는 마지노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양봉업계가 그토록 원하던 벌꿀의 농림부 행정일원화 대열에 제외될 공산이 커져 보인다.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령에는 소, 말, 양, 돼지, 토끼 심지어는 오리, 거위, 칠면조, 꿩 등의 사육가축과 가금류의 육고

기의 도살·가공 및 원유의 집유 과정 등만 규정돼 있지 벌꿀에 관해서는 축산물에 포함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양계업에서의 가장 시장규모가 큰 계란도 마찬가지).

한편 농림부는 후속작업으로서 농림부의 축산가공식품 일원화에 대비키 위한 구체적인 정지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농림부는 축산가공식품 이전에 따른 축산물위생처리법 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 1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농림부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소집, 작업과제 및 업무분담에 관한 협의의 한데 이어 18일에는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가축위생과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등 테스트 포스트를 가동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대한 산과학연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 작업을 내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97 꿀벌 응애류구제방역사업 정부예산 절감방침, 사업량 축소 조정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 을 위한 대책마련이 한참 분주
 지금 정부 각부처마다 예산절감 하다. 따라서 올해 집행되는 농

어촌구조개선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 양봉업계에 투입되는 예산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공공부문의 꿀벌방역비도 축소 조종되어 시행된다.

지난 2월28일 농림부(가축위생과)는 정부의 예산절감지침에 의하여 '97가축방역사업계획 가축방역재료비 부문에서 당초 79억1천5백만원(국비)에서 10%인 7억9천1백50만원을 감액하여 71억2천3백5십만원으로 조정 시행한다고 본협회로 통보해 왔다.

이 가운데 지금 시행직전에 있는 올해 꿀벌응애류구제방역사업에서도 당초 사업계획량을 개량종 꿀벌 65만군에서 60만군으로 줄여 줄어든 5만군에서 7천3백50만원을 점감하여 당초 국비에서 부담케될 9억5천5백50만원의 방역예산이 8억8천2

백만원으로 조정, 시행하게 되었다(시도별 조정변경된 사업량 및 국비예산표 참조).

국비부담 예산조정 방향이 전체 사업량을 줄인 대신에 1군당 2,100원씩의 소요경비(약품비)를 투입한다는 내용(전체규모 13억6천5백 만 원 →12억6천 만 원)에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도에 시행경험에 비춰보면 지방비의 예산배정대로 실행 정도는 각 시·도의 지방재정 자립도 등 입장차이 때문에 주어진 예산 100% 활용된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아 관건은 우리 협회 시·도지회장을 비롯하여 시·군·구 분회장들의 조직활성화 나아가서는 활동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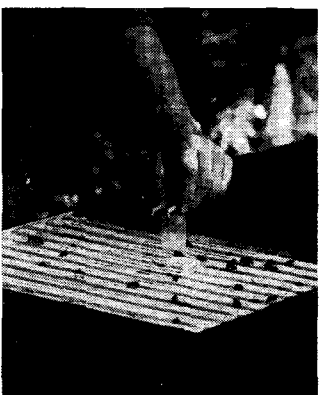
'97 꿀벌응애류구제 방역사업계획조정

(단위 : 천군 · 천원)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량	국 비	사업량	국 비
서울	8	11,760	7	10,290
부산	5	7,350	4	5,880
대구	14	20,580	13	19,110
인천	4	5,880	4	5,880
광주	7	10,290	6	8,820
대전	9	13,230	8	11,760
경기	45	66,150	42	61,740
강원	87	127,890	80	117,600
충북	55	80,850	51	74,970
충남	50	73,500	46	67,620
전북	56	82,320	52	76,440
전남	60	88,200	56	82,320
경북	117	171,990	108	158,760
경남	105	154,350	97	142,590
제주	28	41,160	26	38,220
계	650	955,500	600	882,000

강력하고 편리한 응애전문구제제 바이바를

「바이바를」은 간편한 처리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약효로 모든 응애류를 완벽하게 구제해 줍니다.



1. 「바이바를」은 강력하고 빠르게 응애를 구제합니다.
2. 「바이바를」은 효능이 오래 지속됩니다. 투여후 6주까지도 효능이 지속합니다.
3. 「바이바를」 안전성이 우수하여 꿀벌과 사람에게 안전합니다.

Bayer 
 바이엘코리아(주)



독일 바이엘에서 개발되고 구미 각국에서 애용되는 「바이바를」 스트립이 응애 구제에 새로운 힘을 드립니다.

바이바를

수입원제품
 제조원: 독일 바이엘사(Bayer AG)
 포 장: 20 스트립/갑
 구입문의: 일진실업
 ☎(02)923-3470, 927-3983